

제목: 나와동생의 눈물

일요일아침 우리가족은 늦잠을 자고 나와동생은 컴퓨터로 영어공부를 하는데
엄마가 영어공부에서 나오는 미용사캐릭터를 보고 나에게 말했다 "우리 가위손이라는 영화볼래?"
라고 물어보셨다 난 말했다 "크게보자" 영어공부를 끝내고 가위손영화를 들었다
엄마는 이영화 재밌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 가위손에 뒷모습이 나고
어떤여자가 그 집에 조인종을 누르고 화장품을 팔고 가위손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가위손을 만나서
자기집으로 데려왔다 그 가위손은 머리가 잘 자르고 식물을 가지지기도 잘했다
그래서 아줌마들이 아주 좋아했다 근데 가위손이 좋아했던 여자의 남친이 아버지의
차를 훔치려고 가위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경보장치가 울려서 가위손만 잠기고
그 남친은 식인만 배배내고 도망갔다 그 남친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다
그 여자는 맨 그런 남친과 사귀는지 가위손이 불쌍했다
근데 그 다음장면을 보 가위손의 행동이 답답했다
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가위손을 좋아했던 아줌마들은
★ 한순간에 가위손을 악마 취급을했다 그 아줌마들을 위해 가위손이 얼마나 노력했는에
그래서 마지막엔딩은 가위손이 행복하길 원했는에 내가 원했던 엔딩과는
너무나도 달랐다 가위손과 여자는 서로 포옹을 하고 가위손은
자기가 살던 집으로 떠났다 그 영화가 끝나고 나와동생은 계속 평평 웃었다